

## 4. 제4차 임원, 이사 중앙 연석 회의 및 뉴욕지역 세미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이오영)는 제4차 임원, 이사, 중앙 합동 연석회의 및 뉴욕 지역 세미나가 전·현직 회장 100여명이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이 날 세미나에서 연사로 Dr. 신호범 현 워싱턴 주 상원의원 부의장은 '21세기 우리 동포들의 갈 길'이란 제하에 어려웠던 신 의원의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은 주류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본 활력소가 됨을 강조하고, 우리 민족이 미국 땅의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2,3세들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그러한 토양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으며, 코네티컷 대학교수 김일평 박

사는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는 미주 한인 동포 사회의 발전과 한인회의 역할'이란 제하에서 이민 100년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민족이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안창호 선생이 한인회의 창시자임을 소개하고, 뉴욕 한인회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가 일치 단결하여 구심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요지의 특강을, 전 가든 그로브 부시장이자 코리안 드림 발행인 겸 한미 정책 연구소장인 정호영 박사께서는 '21 세기 재미 지도자의 새로운 자세와 각오'라는 제하에, 우리는 흔히들



(좌로부터 김일평 교수, 정호영 박사, 김석주 뉴욕 회장, 조원일 뉴욕 총영사, 이오영 총회장, 이준성 이사장, 조도식 전 총회장)

'American Dream'을 말하지만, 'American Dream'의 의미는 개인이 잘 살아보자는 실리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그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Korean Dream'으로 이는 흥익인

간의 정신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이러한 철학을 기본으로 한인회에 협조하고, 긍정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Digital 시대에 걸맞게 우리도

변해야 하며, 기성세대가 변할 때 2-3 세대와 간격 9) 2002 세계 한인회장대회 참석 결과보고는 당  
이 좁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 본 회의에 들 시 채택된 결의문으로 대처하고,  
어가

1) 전 회의록 낭독한 후 수정 없이 통과시켰으며,

2) 전반기 중요 업무를 보고하고

3) 이민 100 주년 기념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 하  
고 있고, 2003 년 1 월 13 일을 각 지역 한인회 별  
로 시·주 정부에 이민의 날로 선포하도록 하고,  
기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4) 제 7 차 해외 한민족 대표자 회의를 5 월 16 일,  
하와이에서 개최기로 지난 서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5) 총연 비영리 단체 및 면세 자격이 9 월 17 일부  
로 획득되었음을 발표하면서, 미주 총연에 기부금  
이나 회비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  
고, 후임자가 이를 보전할 책무가 있음을 결정했  
다.

6) 일부 임원 및 회원이 회장에게 보낸 서한에 대  
해서는, 이오영 회장의 해명 내용을 전폭 지지하  
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7) 총연 회칙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 제 19 차 필라  
델피아 정기 총회에서 이오영 회장에게 전권 위임  
되었던 사항임을 재확인하고, 차후 재론 없기로  
결정했다.

8) 재무 및 감사보고는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하  
고,

10) 수재민 구호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에 대해  
서는 각 지역 한인회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으며,  
당시 즉석에서 \$5,453.00 를 모금하여 조원일 뉴  
욕 총영사께 접수시키고, 계속 모금 운동을 전개  
하여 가능한 미주 총연 창구로 집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11) 재외동포 헌법 불 합치에 대해 불 합치 요소를 제  
거하여 존속시켜주기를 강력히 모국 관계 기관에 촉구  
하도록 결정하면서,

이 날 중요 안건으로써,

① 회관 건립 위원회 건립 기금 구좌 통일 건은, 기  
금은 기존 메릴랜드 Chevy Chase Bank 로 구좌를 통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Statement 의 Mail  
Address 는 회장 사무실 주소로 해야 하며, 필라델피  
아의 기금을 Chevy Chase Bank 로 보내기 전에 우선  
적으로 Authorized Signer 엔 현 운영 세척대로 현직  
회장의 이름을 추가하고, 기금 인출은 Authorized  
Signer 5 명 전원의 사인으로 가능하도록 제도적 안  
전 장치를 하기로 하고, 회관 건립이 늦어져 현직  
회장이 계속 추가되어 5 명이 넘을 경우, 먼저 선임  
된 순으로 제외시키기로 운영 세척에 명시하기로 결  
정하고, 그 내용을 김기홍 회칙 개정 위원장이 작성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임용근 전 회장이 납부하  
여 당시 장선근 사무총장이 관리하는 \$ 13,000 과 최  
광수 회장이 관리하는 Saving 및 Checking 의 2 개  
의 구좌, 그리고 제 19 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라 별  
도 구좌를 모두 한 구좌로 하도록 결정했다.

② 100 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인 편찬 사업은

가. 100주년 기념 사업 안내 책자는 서영석 위원장 책임 하에  
나. 한인회 100년 사 및 총연사는 임보현 미주 총연 홍보 특별 위원장 책임 하에 하도록 추진하면서, 각 지역 한인회에서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③ 명예 회원으로 이 동 현 명예 고문을 미주 총연 명예 회원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하고, 제 19대 후반기 임원, 이사 개선 및 보완은 이오영 회장에게 전권 위임하는 등 오늘 토의된 내용을 총망라하여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④ 이 날 회의에서 오글라호마 한인회 김만석 회장으로부터 상벌분과 위원회에 접수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와 회장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8회 이상 지속적으로 미주 일부 주간지에 기고하여 기사화 함으로써 총연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 모 회장 제명 처리 안을 심의한 후, 상임 이사회에 회부하여 진지한 토의 끝에 총연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 날 결의된 결의문 6개항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참조)

## 결의문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2002년 9월 28일 임원·이사·중앙합동(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우리는 일부에서 제기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이하 미주 총연) 회관 건립 기금 구좌 일치, 회칙 개정, 재정 보고를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이

오영 회장이 해명한 내용을 전폭 지지하며, 제 19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미주 총연을 미주 한인 사회의 대표 단체로 구심화 시키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 지지하고 협조한다.

2. 우리는 미주 총연이 미 연방 면세 자격을 획득했으므로, 미주 총연이 건의 채택된 2002년 미주 총연 보조금의 지급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총연 발전 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주미 대사관과 모국 영사국에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한다.

3. 우리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과 제 7차 한민족 대표자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적극 동참한다.

4. 우리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국의 국민과 재외 동포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평화 정착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나간다.

5. 우리는 태풍 루사의 피해로 참혹한 실정에 처해 있는 모국의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 하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재의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한다.

6. 우리는 재외 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 동포법)이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된 불합치 요소를 조속히 제거하여 동법을 존속시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02년 9월 28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